

# "사랑 받는 자"

-아세르 인트레이터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오한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사랑 받는 요한”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실 이 별명은 그가 쓴 복음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바뀌었기에 그는 성경을 쓰면서도 자신을 다섯 번이나 “(예수아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1.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아께서 앞으로 있을 배신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요 13:23 – "예수아께서 사랑하시던 자"**
2. 예수아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요 19:26 – "예수아께서 사랑하시던 자"**
3. 부활의 아침에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요 20:2 – "예수아께서 사랑하시던 자"**
4. 부활 후 예수아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 21:7 –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5. 예수아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요 21:20 – "예수아께서 사랑하시던 자 "**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 즉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거기에는 요한과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상의 체제에서 분리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팀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 세상 중에서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전개됩니다. 율법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신 6:5).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요일 4:10).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자멸의 습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입니다(막 5:5).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레 19:18).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멸의 태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전환의 과정에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내가 누구인지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사랑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나의 존재를 바꿉니다. 나는 새로운 자존감을 지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 요일 3:1.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사랑 받는 사람이다."

## 현충일과 독립기념일

건국 이래 22,993 명의 국민이 이스라엘을 수호하다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국민에겐 현충일에 애도할 친척이 1 명 이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6 일 전쟁과 옴 키푸르 전쟁과 레바논 전쟁에서 싸웠던 한 메시아닉 유대인 참전 용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1967 년에 성전산을 탈환한 최전방 병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에서 폭탄이 폭발하던 것과 그의 품 안에서 죽어가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기도할 때 그는 “왜 내 친구들이 아닌 내가 살아남았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군대 안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초자연적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폭탄과 총탄이 비켜가면서 다치지 않았습다 (시 91:5-11).

이스라엘은 오늘 64 살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충일과 독립기념일 경축이 있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구속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국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 과정을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있으시며(행 1:6),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막 4:26-29),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막 4:30-32), 안에서 밖으로(마 13:33),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가득 차게(마 13:31-32) 하신다고 믿습니다.

## 사명과 공동체

-게이트웨이즈 비욘드(Gateways Beyond)

사도행전 1:6-8 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온 세계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라. 사도행전 2:42-47 에서는 그 사명을 중심으로 깊이 헌신된 언약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명과 공동체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명과 공동체를 결합한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모범은 **게이트웨이즈 비욘드(Gateways Beyond)**입니다. 이들 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명적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함께 밖을 보는 것입니다. 내향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동체를 추구하면 얻는 것이 거의 없지만, 함께 사명을 추구하면 당신은 공동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슈아의 재림 전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예슈아께서는 우리를 승천 후 초기의 뿌리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좀 더 진짜인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는 주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사명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메시아 예슈아의 사랑에 의해 불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고자 갈망하는 것은 예슈아의 사랑과 구속에서 비롯됩니다.

게이트웨이즈 비욘드의 정보와 기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